마음대로 안 돼 막힌 숨통 틔우기

(욥기 16:1~22)

17.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18.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19.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20.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21.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22.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음대로 안 돼 막힌 숨통 틔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대로 안 돼 막힌 숨통 틔우기'
가끔 TV에서 격투기 중계를 시청하다보면 5분짜리 경기를 3라운드에 걸쳐 하고, 챔피언십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5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1분씩 쉬게 되는데 그때에 링 위에 올라온 코치가 전략을 얘기해주면서 선수의 코를 들창코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스텝들은 얼음주머니를 가슴이나 뒷목에 대준다든가 합니다. 그 모습이 하도 이상해서 저도 들창코를 만들어 보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량이 2~3배나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살다보면 정말 숨통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구석을 보아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곳이라고는 없어서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숨통이 막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숨통 막히는 삶을 살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숨통이 막히는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선민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특권은 숨통 막히지 않고 살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그들을 솔로몬 행각으로 데려다가 경배하려고 하자 깜짝 놀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8~19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

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이제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을 영어 성경에서는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프쉬코(αναψυχω)'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를 향한다.'라는 의미의 접두어 아나와 '호흡한다.'라는 뜻의 프쉬코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회개하면 위를 향하여 호흡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서, 회개하기 전의 상태는 숨통이 막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하면 왜 숨통이 터지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면 삶을 살아갈 때에 숨통 막히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나 꽉 막힌 도로를 지나와서 강릉의 탁 트인 바다를 보았을 때에 느끼는 그런 숨통이 트이고 가슴이 확 열리는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전에는 상사들 눈치를 보느라고 숨이 막혀서 기껏해야 퇴근하고 술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사에서 상사의 닦달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낙제를 받아와도 숨통이 트일 수 있고, 사업이 안 돼서 돈이 안 벌려도 숨통은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 숨통 트이기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특이한 사항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재앙과 고통을 통해서 욥의 마음의 위치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구절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욥의 신앙상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얻는 것과 같은 온전한 신앙상태가 아닙니다.

욥은 마음에 육체로 밀접한 관계를 맺은 소중한 대상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대한 재산, 열 명의 자녀, 아내, 친구, 사회적 명예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으면 자연히 그것들을 위해 주체성을 활용하여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재산이 많이 모인 것도 자신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겼기에 재산이 없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수많은 섭리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일에 의로웠던 것입니다. 일

반적인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상벌을 주시는 분으로서 인식하고 살았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계시니라'라는 구절의 중보자는 변론해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삼라만상의 섭리의 주관자로서만 생각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과 1:1의 관계로 서는 자리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욥은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시고 그 주관하시는 대상 중의 하나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드리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밀려나서 하늘과 1:1의 관계임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를 향하여 호흡하기 위한 자세잡기를 하게 된 것인데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질식할 정도로 사방을 답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숨통이 막히면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동안에 하늘을 1:1 관계의 자리로 설정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대자로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밀려 간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욥은 다시 친구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욥도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에 참여하여 위로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욥은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7~16절까지를 보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라고 하였습니다. 12~13절에서도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숴뜨리시며 나를 세워 과녁을 삼으시고 /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쏨으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원수가 나를 이렇게 대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 드리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인관관계에서 답답해지고 삶의 형편에서 숨통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욥이 겨우 숨쉴 곳을 찾은 곳은 하늘이었습니다.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만을 인정하며 살고, 그 주체적 섭리에 하나의 대상으로만 자기를 이해하고 살다가 극심한 재앙을 통해 하늘과 마음을

1:1의 관계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라고 이제까지와는 사뭇 달라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재난으로 인해 죽음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다 14장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이제는 죽기 전에 하늘의 중재자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숨통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숨통인 단계는 즉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뵙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숨통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서 삶의 현실에도 하늘 기운의 숨통이 터지게 됩니다.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뚫고 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숨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나마 숨통을 틔워보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는 본질적으로 숨통을 트일 수 없습니다. 왜 숨통이 막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욥처럼 막대한 재산이 있을 때에 마음에 재산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재산을 담으면 현실에서 돈을 쥐고 싶어 하고 보존하고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담은 돈과 현실에 담은 돈이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장애를 일으킵니다.
욥은 마음에 재산을 담았지만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돈을 담을 때 현실에서도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마음처럼 돈이 벌리지 않을 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현실에서 자녀를 멋지게 키우고 싶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자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멋지게 되지 못하는 자녀를 붙잡고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벌리지 않는 사업을 붙잡고 씨름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답답함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욥에게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야만 합니다. 돈 때문에 답답하면 돈이 안 벌리는 실제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돈이 담겨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빼내야만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을 바꾸기 위해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몰고 가시는 이유는 마음에서 돈을 빼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믿고 따랐기에 마음의 돈을 빼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담긴 것을 제거할 때에 답답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녀로 인해 답답할 때에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녀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체적 섭리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욥이 하나님과 1:1로 관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옮겨가시는 중에 이러한 고통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면 막히는 법

이 없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쉬고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사는 동안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사장님에게 야단을 맞아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담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있다면 숨통이 막히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을 때에 원망과 분노 대신에 중보자의 자리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답답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바로 숨통 틔우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장님께 야단을 맞을 때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녀가 성적표를 엉망으로 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들을 마음에 담지 않겠다는 신앙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담을 때에 마음은 부활과 승천의 길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선한 하늘 공기를 접하게 되고 자녀의 영역에도 하늘 기운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호흡하여 숨통을 열면 나와 관계된 이 땅의 영역에서도 하늘 기운을 빨아들이는 숨통이 열리게 됩니다.
장사를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이고, 부부의 대화중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자녀를 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숨통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늘 기운이 끊어지지 않는 숨통 열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 들창코가 되어서 숨을 쉬듯이 언제 어디에서나 숨통이 막히지 않는 삶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누리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